백화점 '가정의 달' 덕 톡톡

유아 의류·건강관련 효도상품 매출 30~80%↑

지역 백화점들이 완구류, 효도상품 등 선물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정의 달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경기회복세에 소비심리가 살아난데다, 날씨까지 풀리면서 판매실적이 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가정의 달 판촉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선물 시즌의 영향으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관련 상품군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류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늘었으며 완구류 12%, 게임기 11%, 스포츠 용품 및 의류도 13% 증가했다.

어버이날이 포함됐던 주말에는 홍삼 등 건강관련 상품 매출도 43% 이상 늘었고, 와인도 심혈관계 질환 및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출이 82%나 급등했다.

'효도화'로 유명한 컴포트화 매출은 주말 사이 38%나 늘었으며, 40~50대를 주고객으로 한 닥스, 안혜영 등 여성 부티크 의류 매출도 45%나 증가했다.

이밖에 구두(70%), 핸드백·지갑·벨트류(46%), 아웃도어 용품(35%) 등 선물로 인기가 있는 제품들의 매출 역시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매출이 약 7% 증가했다.

가정의 달 주력상품 중 하나인 화장품도 25%나 늘었으며, 핸드백·지갑 등 잡화상품은 21%, 건강식품도 15%씩 상승했다.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매출 실적이 저조했던 중년 여성용 디자이너 의류 매출도 20%나 늘어나면서 백화점 매출을 이끌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완구, 건강식품 등 전통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을 비롯해 아웃도어, 효도화, 아동복 등 활용도가 높은 실용적인 아이템들이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삼성 中서 디스플레이 전 삼성전자가 9일 중국 심천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전시회 'CODE(China Optoelectronics & Display Expo) 2010'에서 3D패널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패널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1분기 수출 23억달러

지난해 동기比 48%P 증가

광주시의 올 1·4분기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6% 포인트 증가한 2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올해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수출실적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지난 2007년의 101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9일 "1분기 광주시 수출실적과 기획재정부 발표 '4월 국내수출에 대한 변동추이', 'IMF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2분기 수출선행지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광주수출이 역대 최고의 기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광주시 수출 실적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가전의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4분기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액은 각각 5억9900만달러, 4억7200만달러 등으로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26% 포인트, 51% 포인트 늘었다. 또 가전제품은 4억9500만달러, 기계류 3억6500만달러, 타이어 2억3500만 달러의 실적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68% 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G금강(주) 해외시장 개척 나섰다

INKE와 복토직파기 등 수출 에이전트 계약

신개념 농기계인 복토직파기와 전동 휠체어 등을 생산하는 G금강(주)이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 나섰다.

G금강(대표이사 김식)은 지난 6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G금강 본사에서 한민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INKE·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s)와 수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계 33개국에 비지니스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INKE는 신개념 농기계인 다기능 복토직파기와 장애인 전용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G금강 제품의 수출을 담당하게 됐다.

G금강은 30여억원을 투자해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못자리와 모내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토직파기를 개발했다. 이 기계는 발아된 볍씨와 밑거름, 규산질 비료를 나란히 뿌리면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 농기계다. 쌀 이외에도 밀과 옥수수, 콩 생산에도 적용이 가능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김식 대표이사는 "다기능 복토직파기는 이미 세계 60여 개국에 전파돼 인지도가 있다"며 "이번 계약으로 수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금강은 금강플렌트, 금강엔지니어링 등 2개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견기업으로, 직원 300여명이 연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G금강 김식(왼쪽) 대표이사와 INKE 홍병철 회장이 지난 6일 G금강 본사에서 수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금강 제공〉

한편 INKE는 세계 33개국 54개 도시에 6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비지니스 네트워크' 단체로, 국내 벤처산업의 세계화 지원과 국내·외 기업간 정보교류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연계 정기예금

光銀 26일까지 한시판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0일~26일까지 17일간 코스피200지수와 연계한 '더블찬스정기예금 48호'를 한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1년제로 코스피 200지수의 상승(하락)률에 따라 최저 0%(원금보장)에서 최고 연 15.0%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단, 만기 지수결정일까지 기준지수가 장중 1회라도 30% 초과 상승시 연 4.0%, 20% 초과 하락시 연 0.0%로 금리가 확정되는 녹아웃(Knock-out)형이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부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럽발 '금융 위기' 공포 보다는 반도체·자동차 저가 매수 기회로

■ 주간 증시 포커스

그리스 재정위기와 미국 증시의 이상거래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시계(視界)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확대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고,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과연 그리스가 국가부도로 이어져 복잡한 채무관계로 얽혀있는 유럽 금융권에 쓰나미를 불러올 것인가의 문제다. 둘째는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 포르투갈로 연쇄 확산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셋째는 국내 증시 내부적인 문제로 외국인들의 대대적인 매도공세가 장기화될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스의 국가부도와 그에 따른 유로존 금융권의 붕괴 시나리오는 앞의 세 가지 이슈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다. 유로존 및 IMF의 지원금은 대부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어서 금융권으로의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다.

한편, 그리스와 함께 재정위기 잠재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으로의 위기 확산 가능성은 현시점에선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역시 많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인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증시에서 최근 이틀 동안 2조원을 순매도한 외국인투자가들의 매도공세는 사실상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변수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가 크게 줄기는 했으나 신규자금의 유입은 크게 제한적인 상황이며, 연기금 및 정부기관자금의 안전판 역할은 수조원 단위의 외국인 매도세가 장기화될 경우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2조원이 출회됐고, 그리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매도규모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기대된다.

또한 현재 한국증시의 2010년 EPS(주당수익) 성장률 추정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덱스) 코리아 기준으로 45.7%에 달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지수의 저평가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원화의 절상이 당분간 진정되면서 환율이 1100원대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 점은 글로벌 경쟁력 높은 기업위주로 유리한 환경이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시가 1600 포인트대 초반까지 조정 국면이 진행된 이후에는 반작용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화학, 각종 IT장비와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시각을 유지하고 다만 금융, 건설에 대해서는 반등시 축소 대응할 것을 권한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